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8. 3. 8.(목) 총 3매(본문3)	
담당 부서	항공산업과	담당 자	•과장 윤진환, 사무관 김준성, 주무관 송규상 •☎ (044) 201-4204, 4189, 4190
	한국공항공사	담당 자	•본부장 박순천, 실장 박재희, 팀장 허주희 •☎ (02) 2660-2204, 2811, 2981
보 도 일 시		2018년 3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8.(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제주·김해공항 대형기 착륙료 인센티브 확대 10% → 20% 좌석난 해소 기대...6개월 시범운영 후 연장여부·감면을 추가확대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김해·제주 공항 국내선 좌석난 해소를 위해 100톤 이상 대형 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에 대한 착륙료 감면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 제도를 약 6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여부와 감면을 추가확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제주, 김해 공항의 국내선은 '13년 이후 여객 증가율이 각각 11.3%, 9.9%로 급격히 성장 중이며, '17년 항공 편당 평균 탑승률이 제주는 90.2%, 김해는 84.2%에 달할 정도로 좌석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 연도별 공항별 국내선 여객 증가율(%)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개년 평균
김해	0.7	6.0	16.5	10.9	6.5	9.9
제주	6.5	13.2	15.8	11.2	5.1	11.3

< 연도별 공항별 국내선 평균 탑승률(%)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개년 평균
김해	75.9	76.1	81.6	84.1	84.2	80.4
제주	82.6	84.1	85.7	89.0	90.2	86.3

□ 하지만, 두 공항은 현재 시설용량이 포화상태로 노선신설 및 증편을 위한 슬롯* 확보가 어려우며, 현재 제주 2공항(~'25)과 김해 신공항(~'26)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완공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각

< 주요 공항별 활주로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 >

공항명	활 주 로				여 객 터 미 널(국내)		
	규 격(m)	연간처리능력(회)	'17년 활용률(%)	SLOT	면적(m ²)	수용능력(만 명/년)	'17년 활용률(%)
제 주	3,180 × 45 1,900 × 45	172,000	97.3	35회	68,471	2,326	121.8
김 해	2,743 × 46 3,200 × 60	118,000	91.0	평일 18회 주말 26회	37,935	1,269	55.1
김 포	3,600 × 45 3,200 × 60	226,000	64.4	41회	77,838	3,145	67.0
대 구	2,755 × 45 2,743 × 45	140,000	16.6	6회	11,985	257	80.0

□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대형기 투입을 유도하여 제주·김해 신공항 건설 전까지의 좌석난을 해소해가겠다는 방침이다.

○ 한국공항공사는 '16년 9월부터 제주, 김해 공항을 운항하는 100톤 이상 대형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에 대해 착륙료 10% 감면('17년 총 5.9억 원 감면)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 그 결과, 대형기 운항이 김해는 13.1%, 제주는 23.3% 증가하고, 연간 공급좌석은 92만 석이 증가(김해 2.1% ↑, 제주는 4.1% ↑)했다.

* B737급의 소형항공기가 B747 대형기로 교체 운영되면 편당 16.4%(공급좌석 227석 ↑)의 좌석공급 증가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인센티브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제주는 소형항공기 운항비중이 90%, 김해는 97%로 여전히 대형기 투입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 현재 착륙료 체계가 중량이 큰 대형기의 경우 소형기에 비해 착륙료가 급증(편당 약 15만 원 → 72만 원)하는 구조인 만큼, 항공사들이 대형기 투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감면을 상향이 필요하다

< 2017년 공항 및 기종별 운항 현황(편) >

구분	C급		D급	E급			계	
	A320 (150석)	B737 (189석)	B767 (270석)	B787 (269석)	A330 (276석)	B777 (393석)		B747 (376석)
김해	20,740	26,876	-	-	1,187	40	-	48,843
점유율	42.5%	55.0%	-	-	2.4%	0.1%	-	100.0%
제주	38,136	102,846	6,665	638	2,497	4,629	2,134	157,545
점유율	24.2%	65.3%	4.2%	0.4%	1.6%	2.9%	1.4%	100.0%

-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제주, 김해 공항은 단기간에 기반시설(인프라 순화어) 확충이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는 대형기 투입을 통해 공급 좌석량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제주, 김해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분한 기반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 또한 “대형기 투입 시 시간대별 혼잡도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항공사측과 운항 스케줄 등을 조율하여 대형기를 투입하더라도 혼잡 시간대에 혼잡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김준성 사무관(☎ 044-201-41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